

〈방씨전〉에 나타난 여성 죽음의 다층성과 그 의미

탁원정*

〈차례〉

1. 서론
2. 한문본 <유생전>과의 거리
3. 여성 주인공 방씨 죽음의 다층성
 - 1) 신행 가마 속 자결의 비극성
 - 2) 운우지락 후 무덤에서 회생하는 환상성
 - 3) 부모 속이기에 동원되는 유희성
4. 여성 죽음을 통해 본 <방씨전>의 의미: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 애정전기소설 <유생전>의 한 이본인 국문본 <방씨전>을 대상으로, 여성 주인공 방소저의 죽음이 지니는 다층적 성격과 그 의미를 진단하고자 한 것이다.

<방씨전>에서 방소저의 죽음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신행길의 가마에서 목을 매고 죽는 비극성, 운우지락을 이룬 후 무덤에서 회생하는 환상성, 부모 속이기에 동원되는 유희성 등 다층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다층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결의 비극성에 전제된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적 억압의 작동이, 운우지락 후의 회생이라는 환상성을 통해 그 비틀기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다시 부모 속이기의 유희성을 통해 효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틀기로 변주된다.

이렇게 볼 때, <방씨전>은 영웅소설과의 접점을 보이는 <유생전>과 달리 영웅담이 소거된 열녀형 애정서사로 변이되었으며, 당대 여성 억압을 전기소설의 다양한 문법으로 비틀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평택대학교 교수

□ 유생전, 방씨전, 여성 죽음, 비극성, 환상성, 유희성

1. 서론

<방씨전>¹⁾은 19세기 애정전기소설 <유생전(劉生傳)>의 한 이본이다. <유생전>은 한문 구결 현토 필사본으로 하바드대학의 연경 연구소 증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상택 교수에 의해 소개된 이후²⁾ 장르적 성향이나 이본 관련 연구, 19세기 한문소설 관련 연구 등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장르적 성향과 관련해서는 이 작품이 애정전기의 후대적 변용으로서, 애정전기류와 영웅소설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논의³⁾가 있었다. 이본 관련 연구는 기본적으로 영웅소설 <유문성전>의 저본이라는 공통된 전제 하에, 부녀 대립 양상에 초점을 맞추거나⁴⁾ 국문 이본들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춘 논의⁵⁾가 있었다. 19세기 한문소설 관련 연구로는 ‘奇遇’와 환상적 기법 활용에 초점을 맞춘 논의⁶⁾와 통속적 성향의 의미에 초점을

-
- 1) 오영식 소장본 <방씨전이라>를 처음 소개한 이명현이 <방씨전>으로 명명한 것을 따라 <방씨전>을 작품명으로 한다.
 - 2) <유생전>, 이상택편, 『海外蒐佚本韓國古小説叢書』 8, 태학사, 1998.
이후 <유생전>이라 하고 해당 쪽수만 표기한다.
 - 3) 박일용, 「전기적 애정 모티프의 영웅소설적 형상화 방식 연구 : 『유문성전』과 『유생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3,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정길수, 「<절화기담> 연구: 19세기 愛情傳奇 傳統의 繼承과 變容」,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79~83쪽; 이명현, 「<유생전>, <방씨전>, <유문성전> 비교 연구」, 『어문논집』 34, 중앙어문학회, 2006.
 - 4) 정운채, 「<유생전>의 이본적 특성과 부녀 대립 양상」, 『선청어문』 24, 선청어문학회, 1996.
 - 5) 서경희, 「<유생전> 연구-이본군의 성격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맞춘 논의⁷⁾가 있었다.

한편 <유생전>의 국문 이본인 <방씨전>은 이명현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⁸⁾ 이명현은 한문본 <유생전>과 국문본 <방씨전>이 영웅소설 <유문성전>의 전반부와 이본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두 작품을 비교하여, 한문본 <유생전>이 전기소설의 전통을 이어 창작되었고 향유층의 확대 과정에서 <방씨전>과 같은 번역본이 나왔으며, 이후 영웅소설의 서사 문법을 받아들여 <유문성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⁹⁾ 한문본과 국문본의 관계 및 한문본 <유생전>과 <유문성전>과의 관계는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기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 논의 과정에서 국문본 <방씨전>이 한문본 <유생전>과 제명과 표기상 차이만 있을 뿐, 부분적 장면 묘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¹⁰⁾ 동일한 작품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문본 <유생전>과 국문본 <방씨전>은 내용상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방소저라는 여성 인물의 죽음과 관련한 세부 내용의 가감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방씨전>의 이본이 존재한다는 점¹¹⁾에서, 국문본 <방씨전> 역시 한문본 <유생전>과는 다른 향유 맥락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새로운 <방씨전> 이본과 기존 <방씨전>을

6) 한의승, 『19세기 漢文中短篇小說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1, 176~182쪽.

7) 한의승, 『<유생전>의 ‘통속성’에 대한 재고』, 『민족문화논총』 54,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소, 2013.

8) 이명현(2006), 앞의 논문.

9) 이명현(2006), 앞의 논문, 2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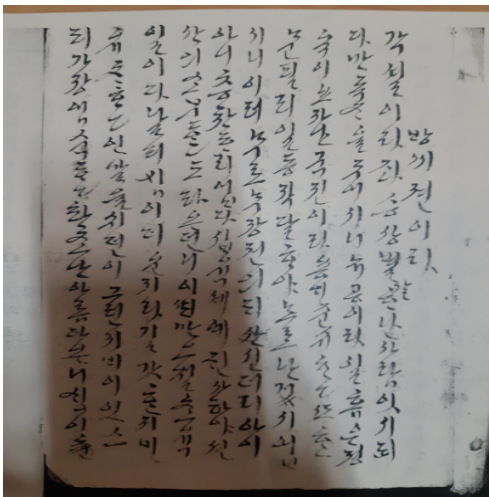
10) 이명현(2006), 앞의 논문, 207~211쪽.

11) 필자는 최근 한글박물관 소장 국문필사본 <방씨전>의 해제 작업을 하면서 오영식 소장본 외의 다른 <방씨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한글박물관 소장 <방씨전>은 본고를 통해 처음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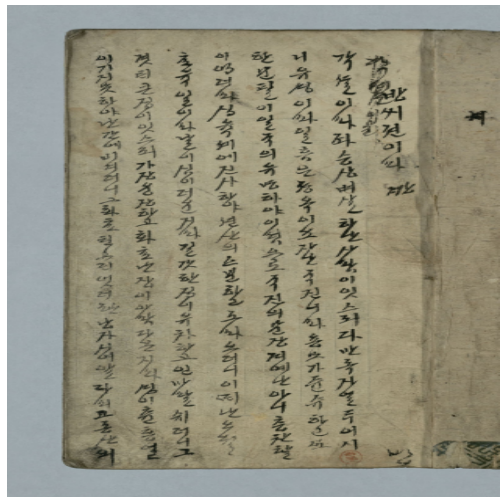
대조해 선본(善本)을 선정한 후, 그 선본과 한문본 <유생전>과의 차이를 여성 주인공 방씨의 죽음을 중심으로 살피고, 국문본 <방씨전>을 대상으로 방씨의 죽음이 지니는 다층적 성격을 진단한 후, 이것이 <유생전> 이본군 전반에서 지니는 의미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2. 한문본 <유생전>과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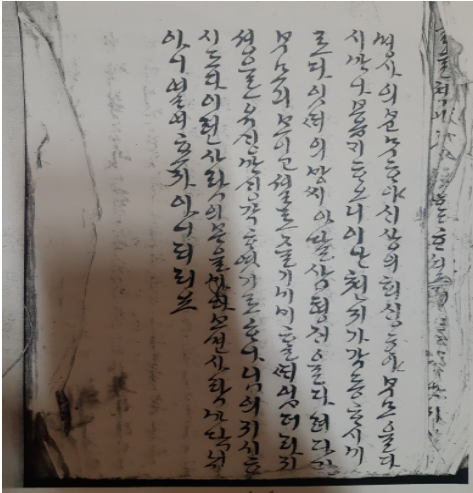
본고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한글박물관 소장 <방씨전>은 내제(內題)가 ‘방씨전이라’이며, 총 38면에 매 면 행수는 8~12로 불규칙하며, 총 19,647여자이다. 기존에 소개된 오영식 소장본 또한 내제가 ‘방씨전이라’이며, 총 74면에 매 면 11행으로 총 17,900여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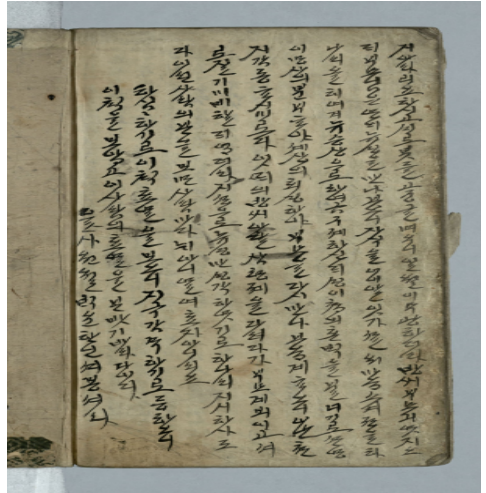
〈오영식 소장본 1면〉



〈한글박물관 소장본 1면〉



<오영식 소장본 마지막 면>



<한글박물관 소장본 마지막 면>

또한 한글박물관 소장본에는 오영식 소장본에 없는 간략한 후기와 간기가 필사되어 있는데,¹²⁾ 한문본 <유생전>이 19세기 작품이라는 기존 연구를 전제로 할 때, 필사 간기인 을사(乙巳)년은 1845년이나 1905년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¹³⁾

이처럼 분량이나 간기의 유무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이본을 상세히 비교해 보면, 오영식 소장본에서 자구의 누락이나 부적절한 삽입으로 문맥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자주 나타나고, 오탈자 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¹⁴⁾ 다음 표에서 특히 자구 누락이나 부적절한 삽입으로 문맥이 부자연스러운 부분

12) “하심십하기로 이 칙 효열을 보오니 지극 감격하기로 등하오니 이 칙을 보았고 이 사람의 효열을 본받기 바라나이다 을사 원월 빅운한년서 봉서라”

13) 한문본 <유생전>의 필사 간기는 무술(戊戌)년으로 1838년, 1898년, 1958년 등의 가능성이 있다.

14) 여주인공 방씨를 ‘박씨’로 혼용해서 표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식 소장본	한글 박물관 소장본
<p>상셔 디왈 늦게야 <u>흔</u> 여식을 두어삼고 비핍을 정 치 못하야 <u>닛</u>삼더니 오날날 상공계압셔 구온^하웁 시니 감격^하오니다 <u>뉴</u>성연 시남자라 니 자식은 세상의 일준지랄리 부부 되어 <u>뜻</u>을 질되지 못^하 올가 <u>염어</u>하옵나이다 <u>승</u>상계압셔 귀^하온 독즈을 <u>괴</u>회 허락^하옵시니 지극 감격^하오나 다만 <u>훈</u>사를 구지^하옵만 갖지 못^하나니다 <u>닐</u>후의 <u>니</u>웃차미 업 계 <u>하</u>옵소서 상셔 <u>달</u>말 니 만져 <u>뜻</u>을 두엇삼더니 승상계압셔 묻져 <u>말</u>삼을 <u>니</u>옵시니 니 뒤의 비록 심정의 불평^하온들 오날 언약을 <u>비</u>반^하릿가 구^하 <u>훈</u> 줄을 <u>낭</u>즈 알^하계^하리라(4~5쪽)</p>	<p>상셔 디왈 늦게야 <u>한</u> 녀식을 두엇삼던니 비핍을 정 치 못하와 <u>닛</u>삼더니 오날날 상공계압셔 구^하온^하 시니 감격^하하옵거니와 <u>뉴</u>성은 <u>귀</u>남자라 여식과 부 부 되어 <u>뜻</u>을 잘 <u>뱃</u>지 못할가 <u>염어</u>하옵고 또 <u>승</u>상계 압셔 <u>귀</u>하온 독자를 <u>허</u>락^하하옵시니 <u>디</u>극 감격^하 <u>하</u>오니다 <u>승</u>상 <u>왈</u> <u>귀</u>남자를 <u>니</u>의 <u>미</u>옥한 <u>자</u>식^하게 <u>다</u> 부^하 <u>하</u>오시니 <u>감</u>격무지^하오나 그러나 <u>일</u>후의 <u>니</u>웃^하 <u>찰</u> 빈 <u>업</u>계 <u>하</u>옵소서 상셔 <u>달</u>말 니 만져 <u>뜻</u>을 두엇삼더 니 <u>승</u>상계압셔 묻져 <u>말</u>삼을 <u>니</u>옵시니 니 <u>두</u>에 비록 심정의 불평^하온들 오날 언약을 <u>반</u>비^하오릿가 정 <u>훈</u>한 <u>줄</u>을 <u>낭</u>자 알^하계^하리라(3~4쪽)</p>
<p><u>낭</u>군은 <u>유</u>렴^하야소서 <u>첩</u>의 <u>신</u>체도 <u>낭</u>군니 <u>친</u>니 <u>보</u>와 <u>업</u>십^하시고 <u>명</u>정의도 <u>뉴</u>생의 <u>박</u>씨라 <u>씨</u> <u>낭</u> <u>군</u>디 <u>표</u>하의 <u>무</u>치^하옵을 <u>천</u>만 <u>바</u>라^하나니다 <u>첩</u>의 <u>원</u>을 <u>시</u>원^하게 <u>하</u>오면 <u>감</u>격^하온 <u>은</u>혜을 <u>반</u>분^하지일 이나 <u>갑</u>풀가 <u>하</u>나이다 <u>설</u>은 <u>경</u>의 <u>티</u>산 <u>갓</u>사오나 니다 <u>슬</u>푸다 <u>빅</u>명^하온 <u>영</u>인^하단 <u>명</u>이 <u>오</u>날^하뿐이라 <u>하</u>엇더라(29~30쪽)</p>	<p><u>낭</u>군은 <u>유</u>렴^하야야 <u>첩</u>의 <u>신</u>체도 <u>낭</u>군니 <u>친</u>니 <u>보</u>시와 <u>업</u>습^하하시고 <u>명</u>정의도 <u>뉴</u>생의 <u>박</u>씨라 <u>씨</u> <u>낭</u>군^하디 <u>표</u> <u>하</u>의 <u>무</u>치^하옵을 <u>천</u>만 <u>바</u>라^하나이다 <u>첩</u>의 <u>원</u>을 <u>시</u>원^하 <u>하</u>오면 <u>감</u>격^하온 <u>은</u>혜을 <u>반</u>분^하지일이나 <u>갑</u>풀가 <u>하</u> 나이다 <u>셔</u>른 <u>경</u>이 <u>티</u>산 <u>갓</u>사오나 <u>훈</u>미^하와 <u>디</u>간^하 <u>일</u> <u>외</u>압^하나이다 <u>슬</u>푸다 <u>박</u>명^하온 <u>영</u>인^하단 <u>명</u>이 <u>오</u>날 <u>하</u>엇^하라(19쪽)</p>
<p><u>네</u> 부모을 <u>여</u>희고 <u>혈</u>혈^하흔 <u>몸</u>이 <u>되</u>야 <u>첩</u>첩 <u>사</u>중의 <u>홀</u>노 잇서 <u>효</u>성이 <u>지</u>극^하고 <u>쥬</u>야의 <u>슈</u>심을 <u>머</u>금 고 <u>긔</u>초니 <u>지</u>니^하난 <u>줄</u>을 <u>상</u>계 <u>아</u>압^하시고 <u>방</u>췌 <u>절</u>힐 을 <u>기</u>득 <u>너</u>기^하시고 <u>호</u>포 <u>스</u> <u>수</u>건^하으로 <u>목</u>을 <u>민</u>여^하 <u>날</u> <u>성</u>이 <u>고</u>히 <u>너</u>겨 <u>자</u>서이 <u>보</u>니 <u>전</u>일 <u>창</u> <u>빅</u>그 <u>와</u> <u>셔</u> <u>우</u>던 <u>쳐</u>여^하거날 <u>그</u>제야 <u>방</u>췌 <u>줄</u>을 <u>알</u>고 <u>몸</u> <u>목</u>의 <u>민</u> <u>거</u>살 <u>쓰</u>르고 <u>회</u>포을 <u>풀</u>고져 <u>홀</u> <u>츠</u>의(52~53쪽)</p>	<p><u>그</u>디 부모을 <u>여</u>히고 <u>혈</u>혈^하한 <u>몸</u>이 <u>되</u>야 <u>첩</u>첩 <u>산</u>중의 <u>홀</u>노 잇서 <u>효</u>성이 <u>지</u>극^하고 <u>쥬</u>야의 <u>슈</u>심을 <u>머</u>금고 <u>고</u>초이 <u>지</u>니^하난 <u>줄</u>을 <u>상</u>계 <u>아</u>압^하시고 <u>니</u>을 <u>보</u>니^하여 <u>그</u> <u>디</u>을 <u>위</u>로^하압^하기로 <u>왓</u>삼^하나이다 <u>한</u>디 <u>보</u>니 <u>혹</u>수^하 <u>건</u>으로 <u>목</u>을 <u>민</u>여^하거날 <u>성</u>이 <u>고</u>히 <u>여</u>겨 <u>자</u>상이 <u>보</u>니 <u>전</u>일 <u>창</u> <u>빅</u>그 <u>와</u> <u>우</u>던 <u>쳐</u>여^하거날 <u>그</u>제야 <u>방</u>췌 <u>줄</u> <u>알</u> 고 <u>목</u>의 <u>민</u> <u>거</u>살 <u>쓰</u>르고 <u>회</u>포을 <u>풀</u>고져 <u>할</u>제(29쪽)</p>
<p><u>하</u>리^하난 <u>췌</u>의 <u>방</u>췌 <u>일</u>오디 <u>방</u>명^하한 <u>시</u>상을 <u>바</u>리 고 <u>구</u>천이 <u>도</u>라가미 <u>심</u>중의 <u>밋</u>친 <u>원</u>을 <u>풀</u>지 <u>못</u>하 야 <u>미</u>일 <u>원</u>하니 <u>명</u>천이 <u>감</u>동^하예^하곰 <u>우</u>리 <u>연</u>분을 <u>지</u>도^하하^하시며 <u>그</u>디 <u>다</u>그로 <u>더</u>부러 <u>빅</u>년^하호^하케 <u>하</u>되 <u>엇</u>지 <u>그</u>디^하난 <u>몸</u>을 <u>싱</u>강^하압^하소서 <u>그</u>디을 <u>위</u>하야 <u>제</u>상을 <u>다</u>시 <u>보</u>게 <u>되</u>여사오니 <u>일</u>시 <u>뱃</u>잇^하나 이 <u>첩</u>을 <u>차</u>치려 <u>하</u>옵거던 <u>천</u>여산 <u>그</u>원^하사로 <u>와</u> <u>츠</u>지 <u>쇼</u>서 <u>기</u>가 <u>무</u>르면 <u>첩</u> <u>인</u>난 <u>곳</u> <u>알</u>이다(53~54쪽)</p>	<p><u>하</u>로^하난 <u>췌</u>의 <u>방</u>췌 <u>일</u>오디 <u>박</u>명한 <u>세</u>상을 <u>바</u>리고 <u>구</u> <u>천</u>의 <u>도</u>라가 <u>심</u>중의 <u>밋</u>친 <u>원</u>을 <u>풀</u>지 <u>못</u>하야 <u>머</u>일 <u>원</u>하니 <u>명</u>천이 <u>감</u>동^하하사 <u>우</u>리 <u>연</u>분을 <u>지</u>게^하야 <u>그</u> <u>디</u> <u>날</u>노 <u>더</u>부러 <u>빅</u>년^하호^하케 <u>하</u>되 <u>그</u>디^하난 <u>모</u>로^하시^하 <u>난</u> <u>닛</u>가 <u>그</u>디을 <u>위</u>하야 <u>제</u>상을 <u>다</u>시 <u>보</u>게 <u>되</u>여사오니 <u>첩</u>을 <u>차</u>치려 <u>하</u>거던 <u>천</u>여산 <u>그</u>원^하사로 <u>와</u> <u>차</u>치^하소서 <u>기</u>가 <u>무</u>르면 <u>첩</u> <u>인</u>난 <u>곳</u>을 <u>알</u>다(30쪽)</p>
<p><u>방</u>췌의 <u>시</u>여 <u>촉</u>불을 <u>동</u>동의 <u>들</u>고 <u>훈</u>런^하니 <u>써</u>거^하날 <u>성</u>이 <u>짜</u>라드러가니 <u>옥</u>슈로 <u>성</u>의 <u>손</u>을 <u>잡</u>고 <u>전</u>일</p>	<p><u>방</u>췌 <u>시</u>녀^하게 <u>촉</u>불을 <u>독</u>잡고 <u>훈</u>런^하니 <u>써</u>거^하날 <u>성</u>이 <u>짜</u> <u>라</u>드러가니 <u>옥</u>슈로 <u>성</u>의 <u>손</u>을 <u>잡</u>고 <u>전</u>일의 <u>상</u>디 <u>못</u></p>

<p>의 상대치 늦히고 스사로 이별하더니 몸을 너미 천여 우면 서로 위로하고 동침할시 원낭의 녹슈을 만난 것더라(57쪽)</p>	<p>하떨 말하더니 천년니 울며 서로 위로하고 동침할시 원앙이 녹슈를 만남 것더라(31쪽)</p>
<p>상셔 벼살할 때에 죄 잇자 하고 정빈을 보너더라 호시고 회계 틈슈을 호여시니 마지못하야 내려가 도입하시니 국눈리 효사 사만하더라(63~64쪽)</p>	<p>상셔 벼살의 뜻시 업더 의외의 회계 틈슈을 하였시니 마지못하야 내려가 도입하시니 효사 사만하더라(34쪽)</p>
<p>발근 후의 방씨부모 거짓 놀닌단 죄하고 천연을 오날 사잡고 이 말 후의 전후라 호오니 화상은 간더 업고 체여 잇거날 이불 속이 두어 사오일 정 화상이 변호여 심시 사람 되리료소이다 상공은 빗비 가 보옵쇼셔(71~72쪽)</p>	<p>발근 후 방씨부모게 거짓 놀닌단 체하고 상셔계 드러가 엿자오더 남자의 화상은 간더 업고 엿던 처녀 이불 속의 누엇사오니 일정 화상이 변하야 심시 사람 되미료소이다 상공은 빗비 가 보쇼셔(37쪽)</p>

위와 같은 비교 내용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국문본 <방씨전>의 선본(善本)을 한글박물관 소장본으로 잠정 확정하고, 이후 논의에서는 한글박물관 소장본을 대상 텍스트로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논의에서는 한문본 <유생전>과 국문본 <방씨전>이 세부 묘사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졌으나, 특히 방소저의 죽음과 관련하여 여러 차이를 보여준다. 한문본 <유생전>의 서사 단락을 기본으로 하되, 방소저의 죽음과 관련된 차이를 중심으로 두 작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p><유생전></p>	<p><방씨전></p>
<p>원헌무종(元獻武宗) 황제시에 절강 사족 좌승상 유흥(劉弘)은 71세에 정옥이라는 독자를 두었다.</p>	<p>좌승상 벼슬을 하는 사람이 독자를 두었는데 이름이 유평옥이다.</p>
<p>정옥이 16세에 진사에 장원해 선영에 배알하고 돌아오다가 거족의 집 후원에서 추천하는 방소저를 보게 된다.</p>	<p>동일</p>
<p>집에 돌아온 정옥이 방소저 때문에 상사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유승상이 방상서를 찾아가 옥지환 한 쌍을 주고 정혼한다.</p>	<p>동일</p>

친자가 방소저를 후궁으로 삼고자 하니 방상서와 유승상이 모두 상소를 올려 반대하다가 옥에 갇힌다.	동일
친자가 갑자기 죽고 순종황제가 즉위하여 방상서와 유승상이 석방되지만, 유승상 부부가 병으로 죽자, 사고무친이 된 유정옥을 방상서가 데려와 집에 머물게 한다.	동일
유승상 달뎛이 아들 달한립을 방소저와 혼인시키고 자 황제의 늑혼을 사주하고, 권세에 못이긴 방상서는 이를 허락한다.	동일
방소저는 유정옥에게 자신이 죽어 신의를 지킬 것이라며 혈서를 보내고, 유정옥이 집을 떠나자 자결할 생각을 하지만 시비 난해의 만류로 그친다.	방소저는 유정옥에게 혈서를 보내고, 유정옥이 집을 떠나자 자결을 시도해 거의 죽기 직전에 부모에게 구호되어 살아난다.
방소저가 신행길에 가마 안에서 자결하고 달승상은 그 시신을 방상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동일
방소저의 유언대로 유가의 선영에 장사를 치르려 가던 중 장씨가 일으킨 난으로 사망에 도적이 일어 길이 막히자 부득이 개원사 청련산 아래 묻는다,	방소저의 유언대로 유가의 선영에 장사를 치르려 가던 중 사망에 도적이 일어 길이 막히자 부득이 천여산 아래 묻는다.
유정옥이 방상서 집에서 나온 후 부모의 묘 곁에서 지내던 중 어느 날 꿈에 방소저가 나타나고, 이에 마을사람들에게 물어 방소저가 죽은 것을 알게 된다.	동일
그날 밤 꿈에서 옥황상제의 주선으로 죽은 부모와 만나고 부모 앞에서 예를 갖추어 방소저와 혼례를 치른다. 이후 방소저가 꿈에 나타나 회생했으니 자신이 묻힌 곳을 찾아오라고 한다.	어느 날 꿈에 방소저가 나타나 명천이 감동하여 연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자신이 묻힌 곳을 찾아오라고 한다.
유정옥이 방소저가 묻힌 곳을 찾아가 방소저의 꿈을 꾸 후 무덤을 살피자 무덤이 갈라지며 방소저가 회생한다.	유정옥이 방소저가 묻힌 곳을 찾아가 꿈에 방소저를 만나 운우지락을 이룬 후 꿈에서 깨자 무덤 속 관이 반쯤 열려 있고 방소저의 숨이 돌아오고 있다.
방소저가 달가에서 자신의 회생을 알고 다시 집안에 화가 미칠까 염려하여 심산에 들어가 살 것을 제안해 회계망으로 들어가 산다.	동일
없음	도적이 물러가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방상서가 방소저의 시신을 찾으러 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난감해 돌아간다.
명황제가 등극한 후 방상서를 회계 태수로 삼자 부임한 방상서가 나라에 천거할 인재를 물색하다 유정옥의 둘째 아들을 보게 되고 부친을 불러오라고 한다.	회계 태수로 온 방상서가 학문 있는 선비를 보고 선생이 누구냐고 물어 유정옥을 불러 오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유정옥임을 알게 된다.

<p>유정옥은 다른 처자와 혼인해 산다고 해 놓고 밤에 몰래 방소저를 불러와 놀라게 하면서 가족이 재회한다.</p>	<p>유정옥은 평생 신의를 지켜 혼자 살 것이라고 하면서 방소저의 화상을 내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화상을 이용해 방상서 부부를 죽인 후 방소저가 부모와 재회한다.</p>
<p>방태수는 벼슬을 버리고 가족을 모두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유정옥은 과거에 합격해 한림학사가 된 후 복로를 평정하고 병부상서가 되었으며, 아들들도 등제하여 부귀영화를 이루었다.</p>	<p>없음</p>

한문본 <유생전>이 ‘원헌무종(元獻武宗) 황제시’로 시작하여 원명 교체를 설정하는 등 정치적 시공간을 선명하게 드러낸 데 비해, 국문본 <방씨전>은 정치적 시공간이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결말 역시 방소저 가족의 재회에서 끝나고 이후 유정옥의 입공담은 생략되어 있다.¹⁵⁾

그런 점에서 국문본 <방씨전>은 남성인 유정옥보다는 여성인 방소저에 초점이 맞춰지고, 특정한 정치적 시공간과는 상관없는 남녀의 애정서사로 변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방씨전>이라는 제목 역시 이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15) 한문본 <유생전>과 국문본 <방씨전>의 결말은 다음과 같다.

<p>娘子 具奏事理始末 以謝不孝之罪殺身之事 尙書夫人 召入劉生曰 君何以欺罔若此 然都是君之德也 非老夫之福也 夫天定配匹 人不可私容 相與歡樂 一筆難記 一口難說 何以勝記 此時 達家諸族 無老少皆被誅 尙書乃棄官而與劉生娘子 俱飯鄉里 晝夜歡樂矣 劉生乃登第職至金馬玉堂爲翰林學士 時北虜寇 過 皇帝遣劉生 乃平定而飯 帝以功勞卽爲兵部尙書 又三子俱爲登第 福祿高爵一時富貴榮華 如此故 人皆曰苦盡甘來而 亦萬世所未有者云 (<유생전> 651~652쪽)</p>	<p>방씨 부모의 옛자오더 부모님은 영의 뉴심을 만나 보오니 자식을 어이 알릿가 설워 마음소서정을 하나리 올허 여겨 뉴승상으로 하여곰 구제하신티 심이 첩의 혼빱을 불너기로 선영이 명사의 분부하야 세상의 회싱하야 부모을 다시 만나 보옵게 호오니 이난 천지 감동하시미로다잇씩의 방씨 아달 삼 형제을 다려다라 부모게 보이고 서로 질기미 비할 더 업더라 지성으로 뉴싱만 생각하엿기로 하나리 지시하시도다 이런 사람의 본을 보면 사람마다 님 아니 열여호자 아니리오 (<방씨전> 38쪽)</p>
--------------------------------------------------------------------------------------------------------------------------------------------------------------------------------------------------------------------------------------------------------	-------------------------------------------------------------------------------------------------------------------------------------------------------------------------------------------------------------------------------------------------------------------------------------

16) 기존의 <유생전> 이본군에 대한 연구에서 국문 이본군이 소개된 바 있는데, 이때 국문 이본군은 박순호 소장 <유싱디전>과 울곡 도서관 소장 <뉴싱전이라>로, 유생이라는 남성 주인공을 표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울곡 도서관 소장 <뉴싱전이라>는 한문본 <유생전>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데 비해, 박순호 소장 <유싱

무엇보다 방소저의 죽음과 환생 관련 서사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신행길 이전에 이미 자결을 시도하면서 두 번의 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꿈속이나마 부모님 앞에서의 정식 혼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혼전 운우지정을 이루고 그 꿈을 깬 후 방소저가 회생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회생한 방소저가 부모님과 해후하는 장면에서 본격적인 속임수가 활용된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차이를 중심으로 <방씨전> 속 여성 죽음의 다층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여성 주인공 방씨 죽음의 다층성

1) 신행 가마 속 자결의 비극성

<방씨전>은 남주인공 유정옥이 16세에 진사(進仕)에 합격한 후 선영에 배알하고 돌아오다가 그네 뛰는 방소저를 몰래 보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후 집에 돌아온 유정옥이 상사병에 걸려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 유승상은 그 내막을 알게 되고, 방상서를 찾아가 옥지환 한 쌍을 선물로 주고 정혼한다. 그러나 황제의 늑혼과 유승상 부부의 사망에 이어 권세가인 달가(達家)의 늑혼(勒婚)으로 혼인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에 방소저는 유정옥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부모를 만단으로 설득하지만, 달가와와 혼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자 자결할 결심을 하고 자신의 집 별채에서 지내던 유정옥에게 혈서를 써 이를 알린다.

디전>은 작품 구조에서 많은 변개를 보이고 있다. (서경희(2006), 앞의 논문, 214~221쪽.)

따라서 국문 이본군 안에서도 크게 남성 주인공을 표제로 한 이본군과 여성 주인공을 표제로 한 이본군 두 계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슬프다 이십이 못 되어 부모를 모시고 니 문져 지하의 도라가 외로운 혼니
 되리오니 흉안 빅면니 에봇툼 잇거니와 인달짜 셔운 정이야 천지 변하온들 잇
 지 잇사올잇가 손가락의 피를 니여 쓰기은 지하의 도라가와도 닛지 마자 하고
 땡세하옵고 또 집적삼은 첩의 옷시니 덜업다 말고 닐노써 신을 사무소서 낭군
 은 천금 갓탄 몸을 죽기를 생각 마르소서 후일의 명가의 귀하온 부인을 어더
 지손만당하옵소서 첩의 부모난 다른 자식 업고 다만 첩뿐니나 죽은 후의난 누
 라셔 효도랄 흐리요 낭군은 유념하야 첩의 신체도 낭군니 친니 보시와 염습
 하시고 명정의도 뉴싱의 방씨라 써 낭군딕 묘하의 무치움을 천만 바라나이
 다 첩의 원을 시원케 하오면 감격하온 은혜을 반분지일이나 갑풀가 하나이
 단 셔론 정이 티산 갓사오나 혼미하와 더강만 알외압나이다 슬프다 박명하온
 영인난 명이 오날뿐이라 하였더라 (〈방씨전〉 19쪽)

이 혈서에서 방소저는 자신이 죽으면 친히 염습하고 명정에 유생의 방
 씨라 쓴 후 유가(劉家) 선산에 묻어 줄 것을 당부하며 서러워한다. 이 편
 지에 대한 답장에서 유정옥은 방소저의 정절에 감격하면서도 달가와 혼
 인하여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고 한다. 방소저는 이에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격양된 상태로 자결할 뜻을 다시 전하고,¹⁷⁾ 방소저의 자결을 기
 정사실화한 유정옥은 방상서 부부를 볼 면목이 없다며 집을 나가버린다.
 이를 알게 된 방소저는 참담한 심정이 되어 단언했던 것처럼 자결한다.¹⁸⁾

17) 낭군의 이러한 서간을 보고 엇지 살고져 하리요 또 달가로 더부러 동낙하라 하였시
 니 니난 첩을 욕하미라 오리지 아니하여 첩의 혼박을 보오계시니 그چه야 낭군을 위
 하여 죽도다 하압소서 장부은 허랑타 흐오니 이후 언약을 표하나니 첩의 옥지환 한
 짝을 보니오니 불판타 마압고 가져제시라 후세의 한 짝 옥지환을 보시거든 첩인 줄
 아압소서(〈방씨전〉 21쪽)

18) 이 1차 자결시도는 한문본 <유생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자결할 뜻을 시녀가
 알고 목숨을 부지하라고 하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此時 娘子聞劉生出去 日
 夜涕泣 爲之瘦瘠 欲爲自絶 蘭惠以想其隙 故姑爲保命矣 其間哀痛何以勝記
 <유생전> 621쪽)

남자 이 말삼을 듯고 천지 망극하여 심신을 정치 못하여 방으로 드러가
비단 의복을 껴뵈고 수건으로 목을 피여 죽게 되었거날 상서 부인이 놀니여
즉시 드러가 보니 발서 몸이 차고 숨이 갓쳐더라 님의 약을 흘리며 슈족을
만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통삭하시니 이윽하여 숨을 니쉬며 눈을 쓰니 영
기 업더라 상서 부처 남자를 붓들고 울며 왈 네 전기에난 쾌히 허락이로디 부모
님 마암디로 하라 하던니 네 옛지 부모을 소기고 이러이 참혹한 정상을 보난다
우리 간장이 옥죽하리요 면목도 보지 못하고 뉴심을 원하여 부모을 심각지
아니하난고 선영의 복강을 근케 하난요 황천의 드러간들 뒤라셔 정절타하리
요 절문 아히가 자결만한다 그리 마라 하니 남자 이로디 달가 오날날 죽으리
라 하고 부모 유원을 풀고 눈물을 근치더라 (〈방씨전〉 22~23쪽)

이 1차 시도는 때마침 들어온 부모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다. 방상서 부
 부가 얼굴도 못 본 유정옥을 위해 자결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며 하소
 연에 가까운 만류를 하자 방소저는 혼례날 죽을 것을 결심하고, 결국 친
 영(親迎)하고 돌아가는 신행 가마에서 목을 매고 자결한다.

할님은 나와 덩 압히 셔고 전후 풍유하고 시녀 슈십 명이 시위하야 오니 보난
사람이 아니 층찬하 리 업더라 달승상 디기셔 낭신부 온단 말을 듯고 원근
친척을 다 청하야 잔치를 비설하고 상부를 기달리더니 남자 덩이 무 밧기
이르니 달승상 부처와 덩문을 열어 보니 남자 옥 갓탄 목의 김수건을 띠여
자난다시 죽엇난지라 달승상 부처 보고 일변 놀납고 분한 마음을 칭양치 못
하더라. 남자 유모와 시녀더리 신체를 붓들고 통곡하야 왈 남자 부모을 소기고
옛지 죽엇난고 쌍을 쭈다리며 통곡하니 달승상이며 일가 친척이 다 참속한 경
상을 차마 보지 못할네라 달승상이 왈 뉴가의 정혼을 심각하고 죽은 비라 하시
고 그 신체 니 집이 두기 불가하니 슈이 도라보니라 하시니 뉴모와 시녀더리
발상하고 도라오니라 곡성이 천지 진동하더라 이찌 방상서 부처 남자를 보니고
집 안이 빈 듯하야 미암을 정치 못할 차의 호련 곡성이 진동하고 남자의 유모와

시녀더리 발상하고 덩을 뵈셔 도라오거늘 엇지 놀납지 아니하리요 상셔 부쳐 문을 열고 신체을 안고 질식하니 일가가 슬난하야 상셔와 부인을 붓잡고 안으로 뵈시고 낭자난 당신 자든 방으로 드러간디 소렴 제구를 갖초와 일변 상셔 부쳐을 위로하야 기운을 진저에 하니 그 셔워하난 거동은 잠간도 보지 못할니라
(〈방씨전〉 24~26쪽)

신부를 기다리던 달가에서 신부의 가마가 이르자 반기며 열어보지만 그 안에는 비단수건으로 목을 매고 죽은 방소저가 있을 뿐이다. 이에 놀라고 분한 달상서는 유정옥을 위해 죽은 것이니 시체를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노기를 드러낸다. 하니뿐인 딸을 시집보내고 서운해하던 방상서 부부 역시 방소저가 주검으로 돌아오자 실신하는 지경에 이르고, 가족들은 바로 소렴(小殮) 준비를 한다.

열녀형 인물의 순절(殉節) 화소는 고소설에서 익숙한 것이며,¹⁹⁾ 19세기 애정전기소설인 <포의교집>에서는 유부녀인 초옥이 자신만의 정절 개념으로 연인인 이생을 위해 여러 번 목을 매어 자결을 시도하기도 한다.²⁰⁾ <방씨전> 역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소설과 유사하지만, 신행길의 가마 안에서 자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용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부를 기다리던 시댁 식구들이나 친영을 보낸 친정 식구들의 반응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정혼한 남성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신행길의 가마에서 목을 매고 죽어, 혼례식이 바로 장례식으로 바뀌는 방소저의 죽음은, 보는 이들을 모두 참담하게 만드는 비극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19) 이재순, 「열녀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11, 경성대 인문과학 연구소, 2006, 10~11쪽.

20) 김수연, 「〈포의교집〉 주인공 초옥의 반열녀(反烈女)적 성격」,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224~234쪽.

2) 운우지락 후 무덤에서 희생하는 환상성

방소저의 시신은 유언²¹⁾에 따라 유가 선산에 묻기로 하는데, 이때 나라가 어지러워 마을마다 도적이 일어나자 방승상은 결국 유가 선산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있는 천여사라는 절 밑에 권조(權厝)하고 돌아간다. 이때 유정옥은 부모 묘하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방소저의 소식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밤 꿈에 방소저가 나타나 울며 자신과 유정옥의 신체를 한탄하고 자신이 자결한 일을 전한다. 유정옥은 신물로 나뉘어 가진 옥지환 한 짝을 보고 그제야 방소저인 줄 알게 되고, 꿈에서 깨자 이를 자세히 알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 수소문해 이를 확인한다.

방소저의 자결 소식을 확인한 유정옥은 처소로 돌아와 방소저를 위해 축원을 올리는데, 이때 꿈속에서 다시 방소저가 흑수건으로 목을 맨 형상 그대로 나타나 옥황상제가 유정옥을 위로하고자 자신을 보냈다고 하고, 유정옥이 방소저의 목에 매어 있는 수건을 풀고자 할 때 꿈에서 깬다.²²⁾ 그 이후 어느 날 꿈에 방소저가 다시 나타나 명천이 감동하여 유정옥과의 백년해로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니 자신을 찾으려면 천여산 그원사²³⁾로

21) 초상 제중을 다 차라 늦고 낭자 입든 옷슬 벗기니 품의 혼 봉흔 글이 잇거날 썬여보니 글의 하얏시되.....원하옵건디 너의 신체를 뉴성다려 간슈하고 여식 명정의도 뉴성의 방씨라 하여 뉴가의 묘하의 붓치오면 이 외로운 혼벽이 원을 풀가 하나리나 또 이답고 설은 정이 티산 갓사오나 약간 기록하오니 후일 영이 얼골얼 상디한 듯 보오소서 꿈의나 낭자로 와 뵈오리라 하엿더라(<방씨전> 26~27쪽)

22) 이날 밤의 달은 밝고 두견은 슬피 우니 심이 잠을 이루지 못하여 초당 밧기 나와 하날을 우로려 탄식하고 두로 단니더니 북디로셔 한 구름이 승상 문묘를 더푸며 이윽하야 정의동자 나와 결하고 엿자오디 엿더한 선관니 산호교의 안저다가 심의 손을 잡고 일오디 눈물을 흘리며 그디 부모을 여히고 혈혈한 몸이 되야 첩첩 산중의 홀노 잇셔 효성이 지극하고 쥬야의 슈심을 머금고 고초이 지닌날 줄을 상제 아압시고 나을 보니여 그디을 위로하압기로 왓삽나이다 한디 보니 흑수건으로 목을 밧엇거날 심이 고히 여겨 자상이 보니 전일 창 박기 와 우던 처너거날 그제야 방진 줄 알고 목의 밧 거살 쓰르고 회포을 풀고져 할제 췌다르니 한숨이더라(<방씨전> 29~30쪽)

오라고 한다.²⁴⁾

그원사에 찾아가간 유정옥은 방소저의 혼백을 위로하며 하루종일 통곡하다가 기운이 쇠잔해져 잠깐 잠이 드는데, 이때 다시 방소저가 시녀를 대동해 나타난다.

남자의 혼백을 위로코져 왔노라 하고 종일 통곡하니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늦기난 듯하더라 기운니 쇠진하야 잠을 드니 방씨 시녀 계축불을 독잡고 호련니 셔거날 싱이 짜라드러가니 옥슈로 싱의 손을 잡고 못하말 말하더니 천년니 울며 서로 위로하고 동침할시 원앙이 녹슈를 만남 갓더라 싱이 씨다르니 나진지라 들너보니 집이 엷고 다만 남자의 분묘뿐니라 그 분묘 가운데로 셔 관니 반 치나 병그러 비단 의복이 보이거날 고히 여겨 그 관을 썬여보니 신체 몸이 더워 있고 숨이 잇난지라 싱이 하반가와 천지를 차리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라 남자를 이려 안치니 몸이 조곰도 상치 아니하엿난지라 남자 옥안을 잠깐 들어 보니 싱이 단순홍안이며 아람다운 티도 비할 디 업더라

(〈방씨전〉 31쪽)

방소저의 시녀가 이끄는 곳으로 들어간 유정옥이 방소저와 운우지정을 나누고 꿈에서 깨어나자 시간은 낮이었고 주변에는 방소저의 무덤밖에 없었는데, 그 무덤 가운데 관이 반이나 열려 있고 그 속에 몸이 더워진 채

23) 방상서가 난리통에 권조한 곳은 천여사로 되어 있으나 방소저가 나타나 자신을 찾으러 오라고 한 곳은 ‘천여산 그원사’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문본 <유생전>의 ‘청련산(靑蓮山) 개원사(開元寺)’가 국문으로 필사되면서 변개된 것으로 보이며, 오영식 소장본도 동일하게 ‘천여산 그원사’로 되어 있다.

24) 이처럼 <방씨전>에서는 죽은 방씨가 꿈을 통해 여러 차례 나타나면서 환상성을 조성하는데, 이는 <유생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의승 역시 죽은 혼령이 꿈에 나타나 계시하는 환상적 요소는 19세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방식이자 생경한 방식이지만 <유생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의승(2011), 앞의 논문, 179쪽.)

숨이 붙어 있는 방소저가 누워 있다. 이에 유정옥이 일어나 앉히자 방소저는 그제야 눈을 들어 처음으로 유정옥을 보게 되는데, 그의 아름다움 용모에 감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문본 <유생전>에서는 이미 부모의 묘하에서 꿈 속에서 부모를 모시고 정식 혼례를 치르고 첫날밤을 보낸 상태였다. 그렇기에 이 장면은, 방소저가 꿈에 나타나 다시 회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자 유정옥이 꿈에서 깨 무덤을 살펴보니 무덤이 갈라지면서 남자가 회생하는 것²⁵⁾으로 바뀌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장면을 초기 전기소설에서 표현되던 환상성이 극에 달한 장면²⁶⁾으로 보았는데, <방씨전>의 경우 무덤에서의 회생 부분에 혼전 남녀의 운우지락이라는 성적인 맥락이 결부되어 환상성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6세기 전기소설 <하생기우전>에서 주인공 여인의 환상계 육체가 하생과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현실계의 육체로 회복되는 과정²⁷⁾과 상당히 유사하며, 이처럼 환상성에 성애적 요소가 결합된다는 맥락에서는 한문본 <유생전>보다 초기 애정전기의 전통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 속이기에 동원되는 유희성

회생한 방소저의 제안대로 두 사람은 달가의 복수를 피해 일단 회계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이때 도적떼의 난리가 평정되고 나라가 평안을

25) 忽然 娘子與侍婢挑一雙紅燈 至生前再拜曰 信哉郎君 不棄私情 如是來訪 實是感激 然而皇天感激 后土有助 更續甘緣 今已回生 願郎君 忽起察焉 生乃驚喜 覺思其夢事 詳察墳墓 墓裂娘子回生(<유생전> 643~644쪽)

26) 한의승(2011), 앞의 논문, 180쪽.

27) 정구식, 「<何生奇遇傳>과 육체의 서사적 재현」,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247~248쪽.

되찾자 방상서는 전날의 공을 인정받아 회계 태수로 임명된다.²⁸⁾ 회계 태수로 온 방상서는 학문 있는 선비를 보고 선생이 누구냐고 물어 유정옥을 불러 오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유정옥임을 알게 된다. 유정옥은 평생 신의를 지켜 혼자 살 것이라고 하면서 방소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화상(畫像)이라도 내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방상서는 가련하게 여겨 방소저의 화상을 내어 주는데, 유정옥은 이 화상을 이용해 방상서 부부에게 속임수를 쓰면서 방소저와 해후하게 한다.

하로난 심이 상서계 옛자오더 낭자오게 지극하와 면목도 보지 못흐 뉴싱을 원하오니 엇지 다란 디 취호오릿가 천지 귀신과 미세하야 홀노 늘거 죽지호의 가서 회포를 베풀고져 하더니 명천이 감동하와 방씨의 화상을 디면한 후로난 방씨 현하더니 드러와 꺾티 자고 가오니 고이하더이다 이 바암의 잡고 보리지 말고져 하오나 식벽으로 나가오니 고이하나이다 호고 모로계 방씨계 기별하야 자식은 두고 몸만 오되 몸을 감초고 나 자난 방으로 드러오라 처녀 씨 입던 의복과 단장지거을 가지고 오라 호엿겨날 방씨 그더로 차리고 뉴싱 자난 방으로 와서 처연이 단장하고 안져거를 발근 후 방씨 부모게 거짓 놀니난 체하고 상서계 드러가 옛자오더 낭자의 화상은 간디 업고 엿던 처녀 이불 속의 누엇사오니 일경 화상이 변하야 심시 사람 되미로소이다 상공은 밧비 가 보소서 상서 부쳐 이 말을 드르시고 울며 가거날 심이 즉시 저 자난 방문을 열고 방씨을 다려다 상서 부쳐 압퓌 안치니 반가오를 정치 못하야 가삼이 막켜 말을 못하시고 눈물만 흘이더라 이윽하야 정신을 차린디 이겨 영이나 귀신이 우리을 소기나냐 만고의 이런 기특한 일이 어더 잇스리요

(<방씨전> 36~37쪽)

28) 한문본 <유생전>에서는 원명(元明) 교체기가 설정되고 방상서가 ‘土豪之風’이 있다 하여 회계태수로 제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此時 我太祖 大明皇帝 奮臂而起 以減元家除群盜 又以方尙書有土豪之風 卽除會稽太守(<유생전> 648쪽))

유정옥은 방소저의 화상이 사람으로 변해 자기 방에서 자고 간다고 한 후, 방소저에게 연락해 처녀 때의 옷차림을 하고 와서 자기 방에 있으라고 하고는 방상서 부부에게 화상 대신 처녀가 누워 있다고 하면서 가 보라고 한다. 결국 속임수에 당한 방상서 부부는 놀람을 금치 못하고 귀신인가 아닌가 하면서 방소저와 해후하게 된다.

한문본 <유생전> 역시 유정옥이 다른 여자와 혼인해 시는 것으로 해놓고 방소저를 몰래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방소저가 바로 어머니가 자는 내아(內衙)에 들어가 자신이 왔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²⁹⁾ 속이기가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잇씨에 도적은 물너가고 나라이 평안하여 피란하든 사람이 다 제집으로 도라오고 방상서 집으로 도라와 영이 신체를 제 원더로 뉴승상 묘하의 영장허려 하고 형장을 차라 낭자 묘소의 가 보니 빈 관만 잇거날 상서 놀니여 더욱 설위 망극망극하야 디성통곡하야 이로디 피란한 도적이 비단을 니여가고 신체은 산짐싱이게 일토타 하고 도려울시 천지 아득하야 지을 분별치 못하고 계우 궁그러 도라도니 부인 신체 이른 말을 듯고 같오디 시로이 질식통곡하니 천지와 일월이 다 늦기난 듯하더라..... 각셜 방상서 방씨 신체를 일코 더오 설위하야 방씨 화상을 기려 방의 걸고 심시 일체로 죠석으로 스려하말 그치 못하디 인 상서 벼살의 뜻시 업더 의외의 회계 티슈을 하였시니 마지못하야 내려가도 넘하시니 효사 사만하더라 상서 자식 업심을 한하시고 벼살할 뜻시 업서 슈심만 머금고 방씨 화상으로 더부러 소일하시더라 (<방씨전> 32~34쪽)

29) 此時 生暗使人以傳所聞所言請來娘子 娘子聞此言驚喜不勝 卽與奴僕等乘彩轎而來 此時三更將深 生與尙書同寢大衙寂然 娘子與卽向內衙 開窓入房曰 母親何其眠深也 小妾榮愛來也 夫人急起明燭果有榮愛也 大驚曰 眞耶夢耶 人耶鬼耶 汝胡爲乎然也 夫人抱娘子之身 轉輾大聲痛哭 娘子亦抱夫人之身 亦大聲痛哭 尙書自外衙門哭聲 驚駭急起入來內房 急有榮愛也 尙書亦驚駭 把娘子之身痛哭曰 是何也 是何也 畫像生耶 榮愛生耶 眞相逢以言之(<유생전> 650~651쪽)

위 인용문은 한문본 <유생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대목으로, 희생한 방소저와 유정옥이 회계 땅으로 들어간 뒤, 방소저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방소저가 가매장된 곳에 찾아간 방상서가 빈 관을 직접 보게 되고, 이후로는 부부가 방소저의 화상만을 끌어안고 소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며, 이는 화상을 이용한 본격적 속임수의 복선이 된다.

이처럼 한문본 <유생전>에서 깜짝 등장 정도로 처리된 방소저와 부모의 해후 장면이, <방씨전>에서는 복선이 될 내용까지 삽입되어 한바탕 에피소드로 구성되면서 비극적인 죽음이 유희로 활용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17세기 <구운몽>에서 시작된 귀신 속임수 회소와 유희성이라는 측면을 공유하면서도³⁰⁾ 그 효과와 지향에서는 독자적인 면모를 지니는 것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4. 여성 죽음을 통해 본 <방씨전>의 의미: 결론을 대신하여

한문본 <유생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유생전>을 애정전기류와 영웅소설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데에는, 상층 가문 출신이라는 남성 인물의 신분과 마지막의 입공담, 그리고 일대기적인 구조 등이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³¹⁾ 그런데 국문본 <방씨전>은 입공담과 지손가

30) 신재홍은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귀신으로 분장한 가춘운과 결연하는 것을 두고 15·16세기에 이루어졌던 미학적 성과로서의 전기성이 17세기 말의 <구운몽>에 와서 전기성 자체가 속임수의 한 수단이 되고 그로 인해 웃음이 유발되는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았다. (신재홍, 『구운몽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140~141쪽.)

31) 박일용(1995), 앞의 논문, 8~9쪽; 정길수(1999), 앞의 논문, 81쪽.

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후일담이 없이 방소저가 부모와 해후하는 데서 끝나고 있다.³²⁾ 그런 점에서 국문본 <방씨전>은 애정전기류와 영웅소설의 중간 단계라거나 영웅소설 <유문성전>의 저본이라는 <유생전>의 장르적 맥락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다.

또한 본론에서 살펴 본 것처럼, <방씨전>은 여성 인물을 표제로 내세우고, 이 여성 인물의 죽음과 관련된 서사에서 <유생전>과 두드러진 변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이 비극성이 강화와 성애적 환상성, 속임수를 통한 유희성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 다음에서는 여성 인물 죽음의 다층성이 지니는 의미를 중심으로 <유생전>의 국문 이본으로서 <방씨전>의 독자적 성격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먼저, 방소저가 유정옥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두 번의 자결을 시도하고 결국 실행길의 가마에서 목을 매어 죽은 충격적 사건은, 조선 후기 열녀전에서 보이는 순절형 자결과 아주 흡사하다. <열녀송씨전> 속의 송씨가 남편의 영전에서 자기 머리채로 목을 맨 것이나 <열부손유인전>에서 손씨가 자결을 만류하는 동서를 안심시킨 후 새벽에 대들보에 목을 맨 것은 현실이기에 더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방소저의 죽음 또한 당대 현실 속 '강요된 죽음'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³³⁾ 또한 그런 점에서 그

32) 또한 <유생전>에서는 결말 부분에 권세가였던 달목 일가의 몰살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며, 이는 영웅소설 <유문성전>의 후반부에서 달목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가 되고 유문성이 이를 처단하는 내용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방씨전>에는 결말에 달목 일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33) 홍인숙은 조선 후기 열녀전이 '죽음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송씨나 손씨의 죽음을 '강요된 자결'로 명명하고 있다. (홍인숙, 『열녀×열녀: 여자는 어떻게 열녀가 되었나』, 서해문집, 2019, 227~257쪽.)

또한 많은 열녀전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예고했던 것과 같이, 방씨 또한 부모나 남성에게 이미 자결을 여러 차례 예고했다는 점에서 '예고된 자결'의 맥락까지

기저에는 열녀의 자결에서와 같은,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적 억압이 작동하고 있다³⁴⁾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적 억압을 기저에 깔고 있는 방소저의 비극적 자결은 무덤에서의 회생이라는 환상성에 의해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유생전>을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도 이 장면의 환상성에 주목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초기 전기소설에서의 회생이 작품의 비극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이라면, <유생전>은 ‘그로테스크’한 면까지 느껴질 정도로 ‘기이’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행복한 결말을 위한 장치로 ‘낭만적 해결’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다.³⁵⁾

이는 <방씨전>의 환상성에도 일정 부분 적용되는 측면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생전>에서는 이미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고 정식 혼례를 치른 상태이기에 이 무덤에서의 회생에 두 사람의 성적 결합은 매개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방씨전>에서는 아직 정식 혼례를 치르기 이전의 남녀 간 성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를 매개로 방소저가 무덤에서 회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환상성의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소저의 자결에는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적 억압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운우지락 후의 회생이라는 환상을 통해 성적 억압에 대한 거부 혹은 그에 대한 전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⁶⁾ 이는 열녀 유씨를 다룬 <유씨전>에서 남편을 따라 죽은 유씨가 임왕과의 만남 이후 남편과 함께 회생하게 되는 환상성이 여성의 정절의식과 현실 모순의 문제를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

열녀전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34) 이숙인, 『여성 몸의 유교적 구성 : 몸의 주체화를 통하여』, 『전통과 현대』, 전통과 현대사, 1999, 59쪽.

35) 한의승(2013), 앞의 논문, 510~511쪽.

36)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24쪽.

다는 점³⁷⁾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여성 주인공 방소저의 죽음과 회생은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적 억압과 그 비틀기를 비극성과 환상성이라는 통속적인 외피³⁸⁾를 통해 소설적 흥미소로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방소저의 죽음은 마지막 부모와의 해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변주된다. 방소저의 화상이 귀신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속임수에 동원되는 것이다. 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1차적으로 17세기 <구운몽>에서 시작된 귀신 속임수 화소나 19세기에 두드러지게 등장한 한문풍자소설 속 귀신 속임수 화소와 동계에 있는 유희의 한 양상이며, 그렇기에 <구운몽>이나 한문풍자소설의 결말처럼 속거나 속인 인물 간의 심각한 대립이나 갈등 없이 화합과 화해의 양상이 나타난다.³⁹⁾

그런데 이 역시 <유생전>에서 너무나 간략화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단순한 유희성으로 볼 수만은 없다. <유생전>에서 생략되고 간략화된 것이 <방씨전>에서 삽입되고 확대된 것, 바로 그 지점이 유희성의 다른 작동 국면을 드러낼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방소저 죽음 이전 상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유생전>과 <방씨전>이 거의 동일한 서사를 보이고 있어 본론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방소저의 죽음은 달가의 늑혼과 그로 인한 정절 고수가 결정적 원인이지만, 달가의 늑혼을 강요하는 부모에 대한 효 역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목의 늑혼을 받아들인 아버지에게 방소저가 전고를 들어 신의를 저버린 부당

37) 광정식, 「<유씨전>의 현실성과 환상성」,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2006, 203~204쪽.

38) 한의승은 <유생전>이 19세기의 통속화 경향 속에서 한문소설로서 할 수 있는 통속성을 꾀한 작품으로 보았으며, 방소저의 환생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제시했다. (한의승(2013), 앞의 논문, 509~511쪽.)

39) 엄태식, 「금기시된 욕망과 속임수: 애정소설과 한문풍자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 『문학치료연구』 3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63쪽.

함을 항변한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⁴⁰⁾ 부녀 대립의 서사구조가 정절과 같은 사회적 윤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딸의 완전한 승리는 보장될 수 없으며 일단 죽음이라는 실패를 감수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⁴¹⁾ 역시 방소저의 죽음과 효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생전>에서는 부모와의 해후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방씨전>에서는 복선까지 마련한 본격적 속이기를 통해 강상(綱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부모를 희롱하고, 이를 통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효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틀기를 시도하고 있다. <방씨전>에서는 이미 혼례 전에 자결을 시도해 죽기 직전에 살려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례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틀기의 당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문본 <유생전>이 애정전기적 요소에 남성 주인공의 영웅적 일대기 서사를 결합하여 남성 중심으로 향유되는 한편에서, 국문본 <방씨전>은 영웅담을 소거하고 열녀형 여주인공에 초점을 맞춘 애정 서사로서 여성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귀교환(人鬼交歡)의 상황에서조차 정식 혼례의 긴박성을 드러내고, 효 열 이데올로기에 대한 보수성을 드러내는 한문본 <유생전>과 달리, 국문본 <방씨전>은 여성 죽음의 성격을 변주하면서 당대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억압을 단계적으로 비트는 작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0) 초왕 딸 이야기를 들어 유정옥과의 신의를 강변하는 이 대목의 경우, 초왕의 딸이 『史記』 『晉世家』에 나오는 고사를 들어 신의의 중요성을 말하는 장면이 한문본 <유생전>에는 있으나 국문본 <방씨전>에는 없으며,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한문본 <유생전>의 작가가 중국고사를 이해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식한 계층이라는 점과 연결시켰다. (이명현(2006), 앞의 논문, 209~210쪽.)

이 장면의 삽입 유무는 한문본과 국문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면일 수 있으나, 본고의 효 이데올로기 관련 논의 맥락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1) 정운채(1996), 앞의 논문, 601~602쪽.

참고문헌

1. 자료

- <유생전>, 이상택편, 『海外蒐佚本韓國古小說叢書』 8, 태학사, 1998.
<방씨전이라>, 오성식 소장본
<방씨전이라>, 한글박물관 소장본

2. 논문

- 곽정식, 「〈유씨전〉의 현실성과 환상성」,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2006, 191~209쪽.
- 김수연, 「〈포의교집〉 주인공 초옥의 반열녀(反烈女)적 성격」,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215~243쪽.
- 박일용, 「전기적 애정 모티프의 영웅소설적 형상화 방식 연구 : 「유문성전」과 「유생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3,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5~21쪽.
- 서경희, 「〈유생전〉 연구-이본군의 성격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205~238쪽.
- 신재홍, 「구운몽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128~167쪽.
- 엄태식, 「금기시된 욕망과 속임수: 애정소설과 한문풍자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 『문학치료연구』 3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35~70쪽.
- 이명현, 「〈유생전〉, 〈방씨전〉, 〈유문성전〉 비교 연구」, 『어문논집』 34, 중앙어문학회, 2006, 203~226쪽.
- 이재순, 「열녀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11,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06, 103~123쪽.
- 정규식, 「〈何生奇遇傳〉과 육체의 서사적 재현」,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231~261쪽.
- 정길수, 「〈절화기담〉연구: 19세기 愛情傳奇 傳統의 繼承과 變容」,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1~107쪽.
- 정운채, 「〈유생전〉의 이본적 특성과 부녀 대립 양상」, 『선청어문』 24, 선청어문학회, 1996, 585~605쪽.
- 한의승, 「19세기 漢文中短篇小說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1, 1~219쪽.

한의승, 「<유생전>의 '통속성'에 대한 재고, 『민족문화논총』 54, 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 2013, 493~523쪽.

홍인숙, 『열녀×열녀: 여자는 어떻게 열녀가 되었나』, 서해문집, 2019, 1~384쪽.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1~272쪽.

ABSTRACT

The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of a Woman's Death in
<Bangssijeon> and Its Meaning

Tak, Won-jung

The current study discussed the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death of Bang Sojeo in <Bangssijeon>, which is a Korean-version story that makes a part of <Yusaengjeon>, a fictional bibliographical love story in the 19th Century.

In <Baengssijeon>, Bang Sojeo's death has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including tragedy in that she kills herself in a carriage for faith, a fantasy in that she revives around the graveyard after a sexual intercourse, and entertainment in that she participates in deceiving parents. The multi-layered character has the following meaning: the sexual suppression of the ideology that demands fidelity leads to the tragedy of suicide and it is distorted by the fantasy of revival after a sexual intercourse. And again, the entertainment of deceiving parents distorts the ideology of familial devotion.

In this respect, <Bangssijeon>, unlike <Yusaengjeon>, is similar to heroic novels, transformed into an epic of a love story of a devoted woman with no heroic story and was mainly enjoyed by women as it distorted the suppression of contemporary women of the time using various rules of bibliographical novels.

Key Words Yusaengjeon, Bangssijeon, Woman's death, Tragedy, Fantasy, Entertainment

논문투고일 : 2020.01.20
심사완료일 : 2020.02.17
게재확정일 : 2020.02.20